

유리기판 공급부족 사태 우려!

TV 대형화 추세로 공급부족 심화 ... 2003년 공급부족률 7.8%

LCD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품재료 수요가 급증하고, 특히 유리기판(基板)은 대형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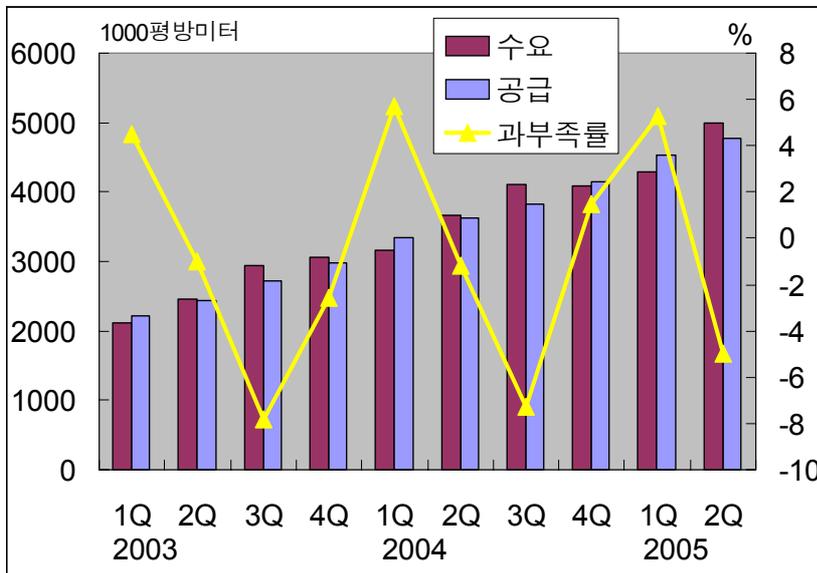
Display Search에 따르면, 2003년에는 2/4분기부터 유리기판 공급이 부족했고 3/4분기에도 생산설비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월 평균 유리기판 수요 293만7000평방미터에 공급능력 272만5000평방미터로 공급부족률이 7.8%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급부족이 심각했던 부문은 제5세대 이후의 대형기판으로 2004년 들어 1/4분기에는 수급이 안정되었지만 2/4분기에는 다시 부족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TV용 수요급증은 예측했었지만 노트북, 모니터와 같은 기존 용도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요가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CF(Color Filter)도 설비능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유리기판 공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이 타이 트해지고 있다. 또 광시야각기술의 VA(Vertical Alignment) 등 고품격 Panel 보급은 CF 생산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제5세대는 물론 제4세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Back Light에 사용되는 CCFL(냉음극 형광램프)도 모든 전자부품재료 가운데 단연 최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액정TV가 CCFL을 다수 사용하는 직하형 Back Light이기 때문에 2003년 수요는 전년대비 59% 증가한 3억1190만개에 달했다.

유리기판과 TFT-LCD의 수급밸런스



CCFL은 현재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2004년 2/4분기에는 공급부족 상태로 전환되고, 수요도 2007년에는 13억4660만개로 2003년에 비해 4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isplay Search는 대형 TV는 모니터에 비해 Module, Unit의 조립생산비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CCFL 수요가 증가하고 가수요도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 LCD용 Driver-IC 수요는 2003년 13억960만개, 2007년에는 29억8440만개로 칩 베이스 기준으로 Panel 수요량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한편, 2007년의 TV용 32인치 WXGA Panel의 코스트를 시산한 결과 3겹의 제5세대 기반이 516톤에 달해 Panel 가격을 상회함으로써 영업손익 베이스는 적자로, 12겹이 가능한 제7세대는 429톤으로 22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재료 코스트는 각각 300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3/07/22>